

신혼 조루

- '늦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문제 -

결 혼한 지 2년이 된 변호사 L 씨. 그는 아내가 거의 8개월 동안 잠자리를 거부했다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L씨는 불쌍하게도 죄인의 모습이었다. 조루가 원인이라고 했다. 삽입 후 보통 2분만에 사정을 하곤 했는데 그 뒤부터 아내는 등을 돌려 누워 버리거나 화가 난 표정을 짓곤 하였다는 것이다.

안절부절 못한 L씨는 아내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형태로도 음핵을 자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성교를 통해서 느끼는 오르가슴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고집했다.

L씨는 아내에게 끼친 감정적인 고통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비하감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얼마 후부터 성행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극도로 불안해지고 민감해진 L씨는 이제 아내의 섹스 거부가 조루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간단한 성 기능 장애인 조루가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성 기피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처럼 조루 증세로 고만해 온 남성들은 그들이 너무 빨리 사정을 할 때마다 몹시 낙담하곤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성 경험은 자신이 패배자임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래서 성행위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결국 사랑 행위를 할 때마다 그들은 또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처럼 불안감을 안고 성행위를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발기부전으로 빠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전이나 음핵의 자극으로부터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빠른 사정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여성들은 성교 행위만으로 오르가슴에 이른다.' 그리고 '멋진 애인'이란 성교 행위로 들어서 동시에 오르가슴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낯은 사고방식은 술한 사람들의 성생활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 왔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음핵의 쾌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나머지 아무와도 이것을 상의하지 않는다. 소수의 여성만이

삽입하고 있는 동안에만 오르가슴을 느낀다. 이런 여성들은 삽입의 시간이 짧으면 몹시 실망하는 유형이다.

어떤 여성이라 할지라도 오래 끌지 못하는 무능력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그다지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자신의 매력에 자신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교를 통해 느끼는 오르가슴만이 최고'라는 신화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조루에 대해 낙담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예민한 여성들이 너무 많다.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적대적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들마저 이런 증상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증오의 표시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려 깊고 신중한 남편일지라도 조루로 인해 아내의 감춰진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만다.

사실, 조루증이 있는 남성들은 적대감의 표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한 시간이 지나도 사정을 못하는 지루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무의식에서는 더욱 적대적이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을 너무 흥분

.....

시키면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행위 시에 파트너의 단단해진 음경을 자기 몸 깊숙이 끌어들이고 자신의 오르가슴만을 탐욕하는 여성들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삽입하고 있는 동안에만 클라이맥스를 느낀다. 이런 여성들은 삽입 시간이 너무 짧으면 몹시 실망하는 유형이다. 그녀들은 성교의 리듬 속으로 빠져 들어가 그녀가 둔부를 휘둘러 대면 파트너의 오르가슴을 재촉하게 되고 막 줄기려고 할 즈음에 사랑 행위는 이미 끝나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행위 동안 자주 위축되고 침울해진다.

발기부전은 대개 나이 마흔이 넘어서 문제가 되는 반면 조루는 결혼 초기부터 바로 문제가 나타나므로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수가 많다. 또 조루는 결혼 후 2, 3년까지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여성 불감증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성취욕에 빠진 남자들은 성생활의 성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사정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려고 사랑 행위에서의 미묘한 맛을 잃고 만다. 불만을 느끼는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던 L씨와 같은 남성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효과도 없는 별별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정을 늦추려고 애쓴다. 그러나 정말 여성을 크게 상처 내는 일은 육체적인 성적 장애보다 기분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남성의 무감각이다.

많은 사람이 조루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다. 성 기능 장애에 빠진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은 주위 사람과 상의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루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 치료해야 한다. 막연히 기다린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적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 72

설현욱

서울 성 의학 클리닉 원장

〈편집자 주: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 하에 싣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